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0. 29.(화) 11:00 < 10.30. (수) 조간 > 배포 2024. 10. 29.(화)

유류세 일부 환원, 중동정세 불안 등에 대비하여 석유시장 점검

-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환원에 따른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 요청
- 중동정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업계·기관 비상대응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0.29(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업계, 기관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24.11.1일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된 조치사항과 최근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대비사항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정유4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 유류세 인하율 조정 : 휘발유 20%→15%, 경유 30%→23%, 액화석유가스(LPG) 30%→23%

이번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24.11.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42원, 경유는 리터당 약 41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4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물량 공급에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하였다.

한편,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습을 시행(10.26일)함에 따라 산업부는 중동정세 불안에 대한 업계, 기관의 대응태세도 점검하였다. 현재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상황에는 이상이 없으나, 산업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석유·가스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정부-기관-업계 간 비상연락 체계를 지속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 현재 약 7개월(IEA 기준)간 지속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 의무량을 상회하는 가스재고분 보유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세계 수요 둔화 등으로 $70/B대로 하락하였으나, 중동정세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정유·주유소 업계에 "유류세 환원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알뜰 공급사에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대일(044-203-5220)
		담당자	사무관	김만식(044-203-52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